

중국 신선포도 수입 증가 추세

aT청뚜지사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수입량은 25.2만 톤, 수입액 6.3억 달러로 2015년 21.6만 톤, 5.8억 달러와 비교 각각 16.7%, 8.6% 증가하였으며, 평균수입 가격은 2,495달러/톤으로 나타남.

중국에서 수입하는 신선포도의 대부분은 칠레(11.9만 톤), 페루(6.5만 톤), 오스트레일리아(3.5만 톤)산으로 1~3위 차지함.

칠레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나 수입단가는 최저임 2363달러/톤. 심천, 상하이, 광저우항구가 신선포도의 주요 수입항구이며 그 중 2/3가 심천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수입되고 있음.

페루는 중국, 페루 간 자유 무역 협정의 발효로 중국내 수입포도 시장 점유율이 2012년 12%로부터 2016년에 26%까지 확대됨.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페루산 포도의 99%는 적포도(Red Globe Grape)이고, 나머지 1%는 씨 없는 포도임(Crimsonseedless), 향후에는 씨 없는 포도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산 신선 포도 평균 수입 가격은 2930달러/톤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가장 높음. 중국 시장에 진입한지 오래 되지 않지만 고품질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 전체 수출물량의 1/3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Crimsonseedless가 주요 품종임. 운송기간이 21일 소요되어 남미 포도 운송 기간 26일 보다 짧아 신선도에 있어 경쟁력이 있음.

2017년 들어서도 수입량은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음. 중국 소비자의 고품질 포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미국, 남아프리카, 한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중국 포도 수출에 노력하고 있음. 한국 포도 수출 최고 가격은 3700달러/톤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수입량이 3.5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에 뉴질랜드, 이집트, 아르헨티나에서도 처음으로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음.

자료원 : (Rock)水果周刊, 中商产业研究院, 청뚜지사